

2026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구성요소	내용
회 의 명 칭	2026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개 최 부 서	교무처
일 시 / 장 소	2026. 6. 16.(화) 10:00, 백호실
심 의 평 의 원 (참석자/배석자 명 단)	(평의원) 이OO(의장), 박OO(부의장), 김OO, 김OO, 이OO, 염OO, 황OO, 이OO (배 석) 교무처 민OO, 김OO, 정OO, 기획처 정OO
진 행 순 서	1. 성원보고 2. 심의안건 설명 및 심의
안 건	제3호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기획처>
발 언 요 지 및 주 요 내 용 (토의내용)	[안건 심의] 의장: 성원보고 및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 선언 의장: 심의안건 제3호 안건에 대하여 기획처장에게 설명 요청 기획처장: 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27학년도 자체 정원조정 계획 및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광역화 추진, 그리고 장애 학생 전공 선택 확대를 통해서 우수 장애 학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1유형을 확대하기 위함임. 주요골자는 소규모 학부 중심 구조를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과 장애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에 따른 학과별 정원 조정임. 별표를 봐주시기 바람. 빨간 부분이 변경된 부분. 통합이행계획의 유사학과 통합에 대한 부분 및 수여학위명 변경 부분이 있음. 복지상당학과는 계열이 원래는 자연과학 계열인데, 해당 학과의 요청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변경.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사회복지학과, 한국수어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과, 공공행정학과와 정원 한명씩을 자율전공학부 인원으로 조정. 단과대학 체제로 바뀌면서 자율전공학부의 편제도 변경. 소규모 학부 단위에서는 2~3개 전공이 묶이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는데, 단과대학 체제로 바뀌면서 단과대학 내 자율전공학부의 인원이 확대. 의료재활공학과도 특수정원이 5명이었는데, 4명으로 1명 조정. AI융합대학은 소프트웨어융합전공과 정보보안전공을 통합이행계획에 따라 통합. 의류산업학과가 기존에는 실기를 보지 않다가 실기를 보게 되면서 디자인예술 스포츠 대학으로 들어왔고, 유형1로 2명을 내주면서 25명에서 23명이 됨. HK자율전공학부 I 도 104명에서 102명으로 줄어듦. HK자율전공학부 II는 특수정원조정으로 10명에서 17명으로 변경. 복지상당학과가 인문사회계열로 바뀌면서 학위수여명이 문학사로 변경. 부칙 봐주시기 바람. 시행일은 3월 1일부터며, 재적생은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걸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소프트웨어융합전공과 정보보안전공이 인공지능학과로 편제가 바뀌는데, 학생은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인공지능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보지만, 졸업할 때 희망 시 입학 당시 학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경과 조치가 되어있음.

	25년도에 입학한 HK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이때는 평택에 자율전공학부가 없었어서 입학할 당시와 동일하게 안성 캠퍼스 학과에서 선택 가능. 26년도에 입학한 HK자율전공학부(안성캠퍼스)의 학생은 안성캠퍼스 및 평택캠퍼스 학과를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26학년도 입학한 HK자율전공학부(평택캠퍼스) 소속 학생은 평택 캠퍼스 내 학과에 한해 선택할 수 있음. 그 당시의 규정 및 경과조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 그리고 “2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학부소속 학생은, 입학 당시 해당 학부에 설치된 전공 학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당시의 편제와 지금의 편제가 굉장히 달라, 당시 편제를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부칙을 제정함. 의원1: 별표1, 5 학과 순서를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건지 질의. 이전 단과대 편제에서는 학과 설립 연도 순서로, 먼저 설립된 학과를 상위로 배치. 지금 별표는 그것과 다르며, 가나다 순도 아님.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이런 식이면 학생들이 보기에 밑에 있는 과를 안 좋은 과로 인식할 수 있음. 특히 지금 자율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학과의 존폐가 달려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음. 기획처장: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음 교무인사팀장: 별표 아래 ‘가나다 순 표기’를 별도로 표기할지 질의 의원1: 표기하지 않아도 인식 가능할 것임 의장: 이번에 단과대학으로 통합하면서 평택 캠퍼스 학과와 설립연도 등을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음 의원1: 원래 단과대 순서가 있었음. 농생대, 공대, 그다음 인문사회대학이 제일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 인문사회대학이 제일 위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필요 교무과장: 그 당시에 관련 논의가 있었음. 타 대학의 편제순을 우리대학도 준용하자는 의견이 그 당시에 제기가 되어서 계열 순서대로 한 것임 기획처장: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 교무과장: 그런 건 없으나, 농생대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 농생대 우선 배열하였는데, 당시 타 대학들의 순서를 확인해보니 인문대학, 공과대학 등 계열순으로 나와서, 그 순서를 준용 의원1: 학과에서는 논의가 없었음 교무과장: 그 당시에 학칙을 통과해서 교수회까지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기획처장: 학과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고, 단과대학 배열은 다른 대학 검토 진행 후 기준이 없다면 가나다로 배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음 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표결을 하겠음. 일단 단과대학 배열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학과 배열은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주시기 바람 교무과 담당자: 심의서가 준비되어 있어, 거수로 하실지 심의서를 작성하실 지 결정해주시기 바람
--	---

	의장: 거수로 할지 무기명 투표로 할지 질의 의원1: 대학평의회니까 서류가 남는 게 좋을 것임 의장: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음 교무과 담당자: 준비해 둔 심의서는, 성명 적는 란과 서명 표시가 되어있음 의장: 그러면, 성명 쓰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쓰지 않는 걸로 하고 가부만 작성하는 걸로 하겠음. 의원2: 단과대학 명칭과 계열이랑 일치가 안되는 이유 질의. 예를들어 지역자원 시스템공학과와 경우 단과대 명칭과 계열이 상이한데 이 부분 질의 의원1: 학위랑 관련. 학문의 특성상 공학적인 요소가 많음. 어떤 학문 특성이나 교육과정을 고려해 계열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음. 의원2: 그러면 공과대학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 교무과장: 현재 융합을 굉장히 강조함. 그래서 타 대학에서는 계열이 상이한 것들을 더 많이 모아서 단과대학을 만듦 의장: 건축학도 국내에서도 예술대에 속한 대학도 있음. 미국에서는 건축대학이 별도로 있는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공학으로 하다 보니까 공학으로 포함. 일부 대학교는 예술대에서 건축학만 포함된 대학도 있음. 의원1: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교수성과연봉제에서 어떻게 그룹핑이 되냐가 제일 중요한 것임 의장: 전원 동의로 결과가 나왔음. 제3호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기획처장: 단과대학 순서는, 타 대학 단과 대학 순서를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 유가 없다고 하면 가나다순으로 진행하겠음
회 의 결 과 (결정·표결 사 항)	제3호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수정통과 ※ 별표1 및 별표5 학과 순서 변경 (가나다 순) ※ 단과대학 배열 순은 그대로 유지
비 고	